

LPGA ‘인비 天下’

2013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그야말로 ‘박인비(25·KB금융그룹)의 해’였다.

박인비는 메이저대회 3연승 등 6승을 쓸어담아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것은 물론 2년 연속 상금왕에 올라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태극낭자 군단’은 지난해 9승을 합작해 부활을 알린 데 이어 올해는 박인비의 활약을 앞세워 11승을 일궈냈다.

지난해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을 휩쓸어 한국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박인비는 올 시즌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뚝 섰다.

2월 혼다 LPGA 타이일랜드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린 그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을 제패해 2008년 US여자오픈 이후 약 5년 만에 ‘메이저 왕관’을 썼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4월 15일에는 세계랭킹 1위에 등극, 이달 18일자 랭킹까지 32주간 정상을 지키고 있다. 이는 2010~2011년 25주간 1위에 오른 신지애(25·미래에셋)를 넘는 ‘한국인 최장’ 기록이다. 기세가 오른 박인비는 다시 3주 만에 노스텍 사스 슛아웃에서 우승하며 순식간에 시즌 3승을 달성했다.

6월 들어 박인비의 상승세는 절정에 달했다.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서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와 연장 혈투 끝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메이저대회 3연승 등 올 6승

올해의 선수상 이어 ‘상금왕’

데뷔 5년만에 ‘최고의 해’

올리더니 한 주 쉬고 아칸소 챔피언십에서는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과 연장 승부를 펼쳐 시즌 5승을 기록했다.

이어 US 여자오픈파자 석권하면서 무려 63년 만에 ‘개막 후 메이저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시즌 6승째로 2001·2002년 박세리가 남긴 한국 선수 시즌 최다 우승 기록(5승)도 갈아치웠다. 이후 박인비는 브리티시 여자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한해 4개의 메이저대회를 우승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에 도전, 화제를 몰고 다녔다.

그러나 두 대회에서 중위권에 머물러 아쉽게 도전을 멈춰야 했다. 이후 박인비는 승수를 추가하지 못해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수전 페테르센(노르웨이),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등의 추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2개 대회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고, 상금왕(245만6290 달러·약 26억612만원)까지 가져갔다.

한국 선수가 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른 것은 2009년 신지애, 2010년 최나연이 있었으나 한 선수의 2연패는 박인비가 처음이다. 박인비를 위시한 한국(계) 선수들은 역대 최다 우승인 2009년 12승에 하나 모자란 11승을 합작했다.

아마추어 최강자로 군림하던 리디아 고는 25일 막을 내린 시즌 마지막 대회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서 프로로 데뷔전(공동 21위)을 치러 ‘슈퍼 루키’의 탄생을 알렸다.

LPGA 투어에서 2년 연속 상금왕에 오른 박인비는 “올해 목표는 마지막 대회까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올해의 선수상’과 상금왕까지 세 가지를 다 이뤘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내년 시즌에 대해 “체력과 테크닉 등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며 “모든 걸 보완해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4월 나비스코 우승 ▶ 6월 웨그먼스 우승 ▶ 6월 US 여자오픈 우승(올해 메이저 3승 포함 총 6승) ▶ 11월 올해의 선수상 ▶ 2년연속 상금왕

11년만의 귀향 광주일고 출신 KIA 이대형

“도루왕으로 팬心 훔치겠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좋은 쪽으로 돌려겠다.”

2013 FA 시장의 ‘다크호스’ 이대형이 마침내 KIA 유니폼을 입었다.

외야수 이대형이 25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아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줄무늬 유니폼 대신 빨간 유니폼 차림으로 선수단 앞에 선 이대형은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타이거즈 선수로서의 첫 세스줄을 소화했다.



서립초-무등중-광주일고 그리고 LG를 거쳐 돌아온 고향은 아직 이대형에게 낯선 곳이다.

이대형은 “얼떨떨하다. 유니폼도 그렇고 모든 게 낯설다. 11년 만에 다른 옷을 입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고향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이대형은 2003년 LG에서 그 꿈을 이뤘다. 2007년에는 0.308의 타율과 53도루로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으며 야구 꽃을 피웠다. 2010년까지 도루왕 자리도 굳게 지키며 ‘슈퍼 소닉’으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슈퍼 소닉’이 탄생한 곳과의 작별과 새출발이 쉽지는 않았다.

이대형은 “(LG는) 11년 생활을 하면서 정들었던 곳이다. 팬, 동료, 프런트 모두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부모님께서도 아들이 고향에 와서 좋아하시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만든 곳을 떠나는 거라 섭섭해하시는 부분도 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면서도 “프로 선수다 보니 팀을 옮기는 여러 경우가 있다. 기회라 생각하였다. 그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어제는 모처럼 6시간이나 푹 잤다”고 웃었다.

어색함 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인생 2막을 여는 곳 이 야구를 시작했던 곳, 함께 운동을 했던 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대형은 “같이 야구를 했던 친구·선배가 있고, 야구를 시작했던 곳에 와서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하니 기쁘고 설레다. 올 시즌 실리적으로 많이 위축됐고 여러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새 환경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FA 영입에 대한 논란과 하락세라는 평가 등 이대형에게는 더욱 열심히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FA 계약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대형은 머쓱하게 웃었다. 자기에 대한 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형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선수보다 관심을 받고 있더라.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여드려야 한다. 당연히 (하락세에 대한) 염려를 하실 수도 있다. 계약에 대해 말도 많지만 시즌 시작해서 그런 관심을 다 좋은 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A가 이대형에게 기대를 하는 부분은 역시 기동력. 이대형 역시 도루왕 탈환을 노리고 있다.

이대형은 “팀에 빠른 선수가 많으면 유리한 부분이 많다. 내가 더 공격적으로 역할을 하면 무서운 타선이 될 것이다. 매년 도루왕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많이 출루하고 뛰어야 할 것 같다. KIA도 성적이 안좋았고 나도 올 시즌 부진했다. 내가 잘하면 팀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다”며 “내 자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한다. 계약 문제 등으로 운동을 못했는데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며 출루를 등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형의 전성기 시절 타격코치로 호흡을 맞췄던 김용달 2군 총괄코치는 다시 만난 제자에게 190안타 50도루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타격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제자에게 쓴소리를 한 김 총괄코치는 “더 할 수 있는데 아쉬움이 컸다. 도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후반기에 손목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곤 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만큼 근성, 투지로 잘해줄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자들이 네팔 동부의 쿨부 지방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향해 걷다가 출리체봉(해발 6440m)을 배경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히말라야는 고대 산스크리트어(梵語)의 눈(雪)을 뜻하는 ‘히마(himal)’와 거처를 뜻하는 ‘알라야(alaya)’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해초여행사 광주지점 제공〉

히말라야 雪山 걸으며 ‘나 찾기’

안나푸르나·에베레스트 쿨부·랑탕 ‘트레킹’ 인기

극한 체험하며 한계 도전...여행객 전년비 10% ↑

“히말라야에 가면 삶은 티끌이다... 찰나적인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걸다시피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하찮은 욕망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욕망의 감옥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면서 지르는 가파른 비명을 히말라야에서 일주일만 걸으면 들을 수 있다...”

소설가 박범신은 ‘히말라야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글에서 히말라야는 자신에게 본성(本性)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

2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트레킹 여행시장이 성숙하면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는 이들이 예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 도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안나푸르나(해발 4300m)와 에베레스트 쿨부지역(5500m), 랑탕(3900m)

등 3곳이다.

안나푸르나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국내선 비행기(30~40분)를 이용해 포카라로 이동한 후 11여일간의 트레킹을 시작하기 때문에 타 코스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쿨부와 랑탕 코스는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히말라야 트레킹 인구 증가세 요인으로 여행업계는 국내 산을 섭렵한 등산 애호가들이 막연히 갖고 있던 설산(雪山)에 대한 동경심과 더 높은 곳에 도전하려는 욕구에서 찾고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여행비용(230만~320만원 정도)이 아니라 7~15일에 달하는 여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어 배낭을 꾸려 트레킹을 시작하면 부딪히는 장벽은 고산병(high-altitude medical problem)에 대한 적응 여부이다. 고산병은 낮은 지대에서 고도가 높은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했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신체의 급성반응이다.

트레킹 여행객은 하루 6~7시간 동안 10여km를 걸으며 600~700m 가량 고도를 서서히 올려 평지보다 3분의 1 정도 희박한 고산의 산소량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체질에 따라 심각한 고소현상을 겪기도 한다. 고산병이 오면 등반을 멈추고 낮은 고도로 내려가야 하지만 약을 복용해 우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

또한 증세가 심하면 고소증세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고산인 휴대용 나일론 소재 주머니인 ‘가모 백’(gamow bag)을 사용하거나, 산소통을 이용해 산소를 흡입하기도 한다.

정오승 해초여행사 광주지점 대표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며 바쁜 일상에 지친 자신을 추스리며 힐링(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에이전시를 통하면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511-6959)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